

# 매일묵상일기

## 가정예배

매일묵상일기 · 가정예배자료

### “교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

2026년 5월 15일(금)

- 찬송 ..... (600장) ..... 다함께
- 기도 ..... 가족 중에서
- 성경 ..... (고전 3:1~15) ..... 다함께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전 3:11)

- 묵상자료 ..... 인도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적인 일을 체험적으로 아는 ‘신령한 자’, 끝으로 본문에 나오는 ‘육신에 속한 자’(1절)입니다.

이 가운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두고 ‘육신에 속한 자’, 곧 영적으로 어린아이들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우리는 모두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아볼로파와 바울파로 나누어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아볼로도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일꾼들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역할이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심겨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지어야 합니다. 말씀과 같이 사람마다 금이나 은으로, 또는 나무나 풀로 집을 짓습니다. 그 결과는 ‘불 시험’을 통해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는 불과 같은 시험에도 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지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집은 불과 같은 시험에도 타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어져 있나요?

- 기도 ..... 인도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바울이 말한 신령한 자와 같이 되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인생의 불과 같은 시험에도 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집을 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 다함께